

韓國에 있어서의 經濟學教育的 課題

邊 衡 尹*

<目 次>

- I. 序 言
- II. 韓國經濟學的 發展과 經濟學教育
- III. 韓國經濟學的 課題와 經濟學教育的 方向

I. 序 言

近年에 와서 經濟學에 대한 社會의 需要가 急激히 늘고 있다. 따라서 經濟學이 社會에 寄與할 수 있는 機會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으며 이런 趨勢는 앞으로도 繼續될 展望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 經濟問題的 解決을 擔當할 經濟學者와 經濟專門家의 教育을 어떤 方向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重要的 問題가 된다.

이와 같이 앞으로의 方向을 생각하는 데에는 우선 지금까지의 經濟學教育이 어떤 發展을 해 왔는가를 알아 볼 必要가 있으며 또 이를 위해서는 그 바탕을 이루는 韓國經濟學界가 어떤 發展을 해 왔는가를 알 必要가 있다.

實踐科學인 經濟學은 다른 어떤 學問分野보다도 現實社會와 密接히 關聯되어 發展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經濟學的 歷史를 보더라도 이 關聯은 뚜렷이 窺知될 수 있다. 稀少資源의 配分이라는 經濟問題를 價格機構에 의해서 說明하려는 西歐의 經濟學은 資本主義의 展開를 背景으로 하여 成立된 學問이며 現在 一般的으로 標準經濟學(standard economics)이라고 부르는 資本主義經濟學이 英美式 資本主義가 發達하지 못한 地域에서 제대로 發展할 수 없었음은 社會經濟的 傳統 위에서만 成長할 수 있는 實踐科學으로서의 經濟學의 本質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當然한 歸結이다. 그러므로 經濟構造가 西洋과 判異하였던 우리나라에서 經濟學이 일찌기 學問으로서 發展할 수 없었던 것은 누구도 탓할 바 못 될 것이다.

* 서울大學校社會科學大學 經濟學科 教授

또 우리나라의 資本主義 展開過程에 있어서도 經濟學이 제대로 發展할 수 없었던 것은 韓國의 資本主義發展이 正常的이 아니었다는 事實에서 찾을 수 있다. 日帝는 植民經濟에 대해서 批判的인 經濟學의 發展을 陰으로 陽으로 彈壓 牽制하였고 解放後 思想的 分裂과 依存的인 經濟體制에서 西歐經濟學의 雜多한 理論이 競爭的으로 導入되기는 하였으나 獨自的인 經濟學의 發展을 위한 與件이 갖추어 지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II. 韓國經濟學의 發展과 經濟學教育

우리나라 經濟學의 歷史가 비록 日淺하고 發展을 위한 與件이 充分히 갖추어 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韓國의 經濟學이 停滯하여 있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韓國의 經濟學은 그 짧은 歷史에 있어서나마 社會與件의 變化에 따라 思想的 傾向, 方法論, 그리고 現實에 대한 態度에 있어서 커다란 變革을 겪어 오고 있다. 우선 1950년까지는 韓國經濟學界에서 마르크스經濟學이 絕對的인 優勢를 보였고 6.25事變 以後 1960년까지는 케인즈經濟學의 導入 및 紹介가 主流를 이루었으며 1960年 以後로는 케인즈理論의 發展, 深化로서의 經濟開發理論(低開發國開發理論)내지 經濟計劃理論이 活潑히 論議되어 왔다.

從來 韓國에 있어서의 經濟學은 日本經濟學界의 絕對的인 影響下에 있었으며 1950年 以前에 우리나라 經濟學에서 마르크스經濟學이 壓倒的이었던 것은 當時 우리나라 經濟學者의 大部分이 마르크스經濟學의 支配下에 있던 日本에서 教育받은 사람들로 構成되어 있었다는 데에 큰 理由가 있었다. 게다가 日本 植民地統治에 대한 反撥로 韓國의 깊은 經濟學徒들이 마르크스主義에 魅力을 느끼고 있었다는 事實이 이러한 傾向을 더욱 深化시켰던 것이다. 또 當時 日本 植民地統治의 經驗을 反省하여 불 때 모든 外勢를 排除하는 左翼의 上張이 大衆에게 「어필」한 것도 역시 큰 理由가 되었다. 그러나 1948年 政府樹立 以後 左翼의 勢力이 退潮의 길을 걷게 되었고 6.25事變으로 마르크스經濟學은 完全히 沒落하게 되었다. 當時 經濟學의 學問的 水準을 보면 마르크스經濟學이라 하더라도 그 理論的 水準은 그리 높지 못하여 대체로 翻譯이나 紹介의 段階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도 專攻分野에 대한 廣範한 理解에 基礎한 것이 아니라 特定人物의 理論을 生硬한 내로 傳達하는데 그쳤던 것이다.

그러나 經濟史學分野에 있어서는 學問的 進展이 있었으니, 그 理由는 첫째로 마르크스主義經濟學이 理論과 歷史를 分離시킬 수 없다는 立場에 서기 때문에 當時 大部分의 學

者가 歷史研究에 專念하였다는 것과, 둘째로 歷史學은 學問的 素材가 전혀 別個일 수가 있으므로 同一한 理論을 가지고 새로운 研究成果를 낳을 수 있다는 點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歷史研究은 方法論的으로 볼 때 古典的 領域에 머물러 있어 方法論的 發展을 찾아 보기 힘들었으며 그 觀點에 있어서도 역시 當時 日本의 學界를 支配하고 있던 東洋社會의 停滯性이란 觀點에 立脚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마르크스經濟學者들에 의한 韓國史研究도 1948年 政府樹立과 더불어 衰退하기 시작하였다. 社會主義가 不法化되고 學問的 活動도 禁止되자 大部分의 마르크스主義者들은 越北하였으며 非마르크스經濟學이 너무나 형편없는 狀態에 있었기 때문에 學界는 잠시 空白狀態를 免할 수 없었다. 더우기 6.25라는 試練 속에서 經濟學界는 完全히 破綻에 直面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55年頃에는 韓國經濟의 再建과 더불어 經濟學界도 점차 復活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것은 從來와는 전혀 다른 經濟學——케인즈經濟學——의 復活이었다. 解放 直後에도 一部學者에 의해서 케인즈經濟學이 紹介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1955年頃부터 數年間に 케인즈의 『一般理論』을 비롯한 한센, 딜리아드 등의 케인즈經濟學 入門書들이 많이 翻譯, 出版되었다. 當時 케인즈經濟學의 紹介水準은 『一般理論』의 內容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으나 이 理論은 삼시간에 韓國經濟學界를 휩쓸게 되었다. 케인즈經濟學이 이처럼 短時間에 韓國經濟學界를 支配할 수 있게 된 理由는 마르크스經濟學의 退却以後 經濟學界가 空白狀態었다는 事實과 더불어 美國의 物資援助와 함께 모든 面에서 美國風潮가 無批判的으로 받아들여졌다는 一般的 趨勢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케인즈理論의 導入初期에 그에 대한 理解가 어느 程度였느냐 하는 것은 當時 經濟學을 한다는 사람들이 消費를 美德으로 보고 戰爭消費經濟를 讚揚하는 風潮를 자아내는가 하면 모든 時事問題를 케인즈流로 解決하려고 한 態度에서 그 皮相的임과 現實에 뿌리박지 못했음을 가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學問的 態度는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차차 是正되어 갔다. 그들은 케인즈理論의 本質과 限界를 점차 理解하게 되었고 우리 經濟現實과 그 理論과의 距離도 認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態度와 認識의 變化는 1960年을 前後하여 다루어 導入된 各種 低開發國開發理論과 低開發國에서 1960年代에 流行처럼 번지게 된 經濟開發計劃의 樹立과 實施에 의하여 促進되었다. 케인즈理論의 發展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變化는 美國經濟學界의 壓倒的 影響下에 이루어졌다. 즉 經濟成長論은 케인즈經濟學의 動態化로서 展開되고 低開發國開發理論은 美國의 對外援助政策과 密接한 關聯을 가지고 展開된 것으

로 볼 수가 있는데 經濟成長論과 低開發國開發理論은 1957年을 頂點으로 美國援助가 減少하기 시작하고 復興景氣도 絶頂期가 지나 經濟成長이 鈍化하는 時期에 紹介됨으로써 많은 關心을 끌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별로 긴 時差를 갖지 않고 해로드, 도마의 經濟成長論과 逆시, 허쉬만의 低開發國開發理論이 紹介되어 널리 論議되었고 바로 뒤를 이어 各樣各색의 理論이 競演을 벌이다시되 되었다.

經濟成長論은 一國經濟의 長期的 成長에 따른 所得, 生産力, 投資, 成長率 등 變數 相互間의 關係를 巨視的으로 把握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말하는 低開發國開發理論과 密接히 關聯된다. 低開發國開發理論은 하나의 一般理論이 있는 것이 아니라 大部分 特定한 經濟의 經驗을 土臺로 하여 形成된 것이므로 社會經濟的 與件이 相異한 다른 低開發國에 그대로 適用될 수가 없으나 低開發國開發問題가 가지는 多樣性和 困難性을 認識하게 하는데 큰 意義가 있었고 또 問題解決을 위한 接近方法에 많은 示唆을 줄 수 있었다. 또 經濟開發理論은 政策論이기도 하였으므로 經濟體制의 問題도 比較研究되었다.

이러한 過程에서 經濟學界의 變化에 큰 影響을 준 契機는 世界的인 趨勢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62년부터 經濟開發計劃이 樹立, 實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以前에도 經濟學者가 政府의 政策樹立에 關與하지 않은 바는 아니었으나 經濟開發計劃과 더불어 社會로부터 經濟學에 대한 要求가 急激히 늘어 나고 또 計劃的인 分析을 要求하였다. 計量經濟學이나 產業聯關論 등 經濟學에 計量的인 方法을 導入한 것은 그보다 훨씬 以前이었으나 이와 같은 社會的 要求에 따라 이 方面으로의 經濟學의 加一層의 發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1964년에 韓國經濟의 1960年度 產業聯關表가 作成되면서 產業聯關論에 따른 經濟分析이 可能하게 되었고 經濟計劃의 必要에 隨伴하여 韓國經濟의 計量經濟學의 分析, 計量經濟學的 模型에 의한 韓國經濟計劃樹立 등 經濟學은 現實問題의 解決이라는 課題에 한발 한발씩 닥아서게 되었다.

그리고 先進國經濟學界와의 交流는 從前에 비해 대단히 活潑해져서 先進國에서 最新의 經濟理論을 習得한 사람들이 國內學界의 重要한 位置를 占하게 되고 文獻의 導入도 빨라져서 先進國理論 導入의 時差는 急速度로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經濟理論에 대한 理解의 程度도 많이 向上되어 이세는 有數한 國際的 經濟學學術會議에도 우리나라 經濟學界의 代表가 參加하고 있다.

이처럼 比較的 짧은 期間동안에 西洋에서 長期間에 걸쳐 展開되었던 理論과 最近에 急速度로 發展하고 있는 새로운 理論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 經濟學界는 이들을 理解하는 데에 大部分의 精力을 바쳐야 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實情이었다. 그러나

앞에서指摘한 바와 같이 經濟開發計劃의 推進과 더불어 經濟學이 學問을 위한 學問이 아니라 現實問題의 解決을 위한 學問이라는 實踐科學으로서의 性格이 社會的으로 크게 要求되면서 從來에도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先進國理論의 韓國經濟에의 適用에 限界性이 있음이 점점 더 뚜렷하게 浮刻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經濟學界의 발자취를 대강 더듬어 보았다. 한마디로 말하여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經濟學界는 外國理論의 導入에만 汲汲한 나머지 獨創的인 理論을 생각해 볼 겨를을 가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 經濟를 分析하는 研究는 특히 最近年에 와서 比較的 活潑하게 進行되어 왔으나 이것은 外國에서 發展된 理論의 單純한 應用일 뿐 理論的인 發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하여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經濟學界의 活動이 앞으로의 우리나라 經濟學의 發展을 위한 아무런 準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하면 그러한 것은 아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經濟學의 傳統은 너무나 짧으며 經濟的, 社會的 與件이 經濟學의 自由로운 發展을 위하여 有利하지 못한 狀況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經濟學者들이 아무런 獨創的인 理論을 내놓지 못하였다고 해서 非難을 받아야 한다면 이는 지나친 것이라 할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의 經濟學者들은 그야말로 無에서 出發하여 自己의 힘만으로 外國의 理論을 올바로 받아들려고 努力해 왔으며 이를 基礎로 하여 韓國經濟의 分析에 寄與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過程에서 비록 아직까지는 뚜렷한 理論의 業績을 내 놓지 못하고 있지만 先進國의 理論이 가지는 長短點을 점차 認識해 가고 있으며 이를 基礎로 하여 우리나라 經濟의 傳統과 現實에 미추어 알맞는 理論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方向으로 努力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熟考하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까지 說明한 우리나라 經濟學界의 발자취와 經濟學者들의 態도의 變化는 바로 우리나라 大學에서의 經濟學教育의 발자취와 態도의 變化와 그 軌道를 같이 한다. 1955年以後 서울大學校商科大學 經濟學科의 教科課程의 變遷에 따라 經濟學教育內容의 變化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55년부터 現在까지 繼續하여 專攻必須로 되어 있는 科目은 經濟原論, 經濟史, 貨幣金融論, 統計學, 經營原論, 經濟學史, 財政學, 國際經濟學 등이고, 없어진 科目은 商學通論, 經濟地理, 商業政策, 社會政策, 工業政策 등이고, 새로 생긴 科目은 經濟計劃 등이다. 專攻必須科目의 이러한 變遷을 볼 때 별로 큰 變動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나 실제 그 內容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經濟學의 變遷에 따라 놀랄만큼 큰 變化를 보여 온 것이 事實이다. 특히 選擇科目에 있어서는 科目名 自體도 많은 變化를 보여 왔는데

그 變化傾向을 보면 全體的인 教科課程으로서 다소 雜多한 느낌을 주던 것이 점차 體系를 잡아 基本的인 科目의 講義에 充實해지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III. 韓國經濟學의 課題와 經濟學教育의 方向

經濟學을 教育하는 目的은 一國이 當面하고 있는 經濟諸問題를 그 歷史的, 制度的 背景에 비추어 認識시키고, 이 複雜한 問題들을 分析하고 健全한 解決策을 提示하는 데에 經濟理論이 어떻게 利用될 수 있는가를 알게 하는 데에 있으며, 나아가서는 分析的이고 客觀的인 思考方法을 길러주고 價値判斷과 現實의 分析을 判別할 수 있는 批判的 能力을 길러주는 데에 있다. 여기서 重要的 事實은 一國의 歷史的, 制度的 背景과 여기서 나타나는 經濟問題에 適用될 經濟理論과가 서로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日美에서 發展된 標準經濟學은 그 經濟學이 生成된 背景이 市民社會를 前提로 한 資本主義 經濟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事實은 온히 忘却된 채 그 經濟學이 時間과 空間을 超越하여 妥當한 것처럼 잘못 認識되기가 일수였다. 이러한 認識은 그러한 傳統 속에서 살아온 英美經濟學者들이 日國의 經濟問題를 다룰 때에는 마치 空氣 속에서 살면서 空氣의 存在를 온히 忘却하는 경우와 恰似하므로 그리 非難할 것이 甞된지도 모른다. 그러나 英美經濟學者들 및 그들의 理論을 無批判的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低開發國의 經濟學者들이 그 理論이 生成背景에 關係없이 時空을 超越하여 適用될 수 있다고 믿고 低開發國의 經濟問題에 그 理論을 그대로 適用하려고 하였을 때, 長期적 많은 問題들이 露出되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결코 例外가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 人類가 아직도 時空을 超越할 수 있는 眞正한 普遍的 經濟理論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에 不過하다. 즉, 現存하는 諸經濟理論은 그 程度의 差異는 있지만 모두 部分理論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 將來 언젠가는 一般理論이 나타나리라고 期待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現時點에서는 具體的인 經濟問題를 解決하는 데에 適用할 수 있는 理論은 역시 部分理論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各各의 歷史的, 制度的 背景을 가진 各經濟의 問題를 解決하는 데에 必要的 部分理論들은 存在하는가? 유감스럽게도 現在로서는 市民社會를 背景으로 하는 資本主義 經濟에 관한 部分理論인 標準經濟學만이 唯獨 뛰어난 뿐이며 餘他經濟에 관한 理論은 거의 없고, 또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보잘 것 없는 狀態에 있다. 그러면 餘他經濟에서 發生하는 經濟問題를 分析하고 解決하는 데에 必要的 理論은 어디서 구할 것인가? 이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새로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自國의 經濟現實에 알맞는 經濟理論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야말로 低開發國의 經濟學者들에게 賦與된 가장 보람있는 使命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低開發國 經濟學者들의 使命은 莫重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至難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課業이 어렵고 즉시 達成될 수 없다고 해서 拋棄해버릴 性質의 것은 아니다. 그리고 多幸하게도 우리의 出發點은 無가 아니라 既存經濟學體系일 수 있다는 것이 認識되고 있다. 즉 市民社會와 東洋的 後進社會는 根本的으로 相異한 側面이 있는 同時에 共通的인 側面 또한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自國에 맞는 經濟理論을 만들어 내는 길은 標準經濟學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더욱 徹底히 研究하는 것이다. 앞서서도 指摘한 바와 같이 既存의 部分理論 중에서 가장 高度로 發達한 것이 英美의 標準經濟學이라면 이 高度의 學問的 水準으로부터 취할 것이 있으면 最大限으로 취하는 것이 經濟的인 것이다. 새로운 理論을 構成함에 있어서 標準經濟學으로부터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이냐, 그리고 버리는 대신 무엇을 더 添加할 것이냐를 決定하기 위해서는 當該社會의 傳統과 現實의 本質을 把握하고 이를 標準經濟學이 前提로 하고 있는 社會의 特質과 比較하여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比較의 結果 兩社會의 特質이 一致할 때 이 特質을 前提로 한 標準經濟學의 內容部分은 그대로 취해도 無妨한 것이다. 한편 兩社會의 어떤 特質이 反對로 될 때에는 취할 수 있는 경우와 버려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취할 수 있는 경우는 그 特質의 差異가 理論의 內容에 아무런 影響도 미치지 않거나, 또는 影響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 影響이 些少하여 無視할 수 있는 경우이고, 버려야 할 경우는 그 特質의 差異가 理論의 內容構成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경우일 것이다. 이 때 相異한 特質에 알맞는 새로운 內容의 理論이 添加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대단히 쉬운 일처럼 들릴지도 모르나 實際로 이러한 作業이 얼마나 至難한 일이나 하는 것은 이러한 方向의 努力이 完全히 成功한 例가 아직 없다는 事實이 端的으로 立證하고 있다. 그러면 이를 어렵게 하는 要因들은 무엇인가?

첫째로, 어떤 社會의 傳統的 또는 現實의 特質이라고 하지만 이 自體를 把握하기가 어렵다. 어떤 한 點의 位置를 나타내는 方法이 座標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듯이 한 社會의 特質도 그 社會를 記述하는 基準이 달라짐에 따라 그 表現이 달라지며 새로운 基準이 設定되면 從來에는 아무런 認識의 價値도 없던 事實이 重要한 特質로 되기도 하는 것이다. 비유컨대 이것은 地球의 表面을 大氣가 둘러싸고 있다는 事實은 大氣가 없는 天體와의 關聯下에 비로소 主要한 特質이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

다.

둘째로, 社會的 與件이 經濟理論의 構成에 어떤 形態로 前提가 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理論을 構成할 때에는 假定을 明示的으로 밝히고 시작하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社會의 어떤 特質을 暗默的으로 前提로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므로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理論의 論理展開過程 하나 하나에 대한 徹底한 分析과 理解가 必要하다.

셋째로, 새로운 理論部分을 添加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결국 理論의 運行現象을 把握하여 그 運行法則을 찾아낸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 作業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標準經濟學이 어떠한 過程을 거쳐서 現在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가를 돌이켜 봄으로써 足할 것이다.

결국 우리 經濟學界는 우리 實情에 맞는 經濟理論의 案出을 위하여 끈기있는 長期的 努力을 기울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點을 考慮할 때 大學에서의 經濟學教育은 앞으로 어떤 方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앞에서도 指摘한 바와 같이 大學에서의 經濟學教育의 目的을 自己 나라의 當面經濟諸問題의 特質을 理解하고 客觀的으로 分析하여 健全한 解決策을 찾는 能力을 길러줌으로써 批判的 思考를 갖게 하는 데에 두기로 한다면 앞으로의 經濟學教育은 다음과 같은 點들에 留意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1) 經濟學의 木來의 性格을 徹底히 理解시키도록 할 必要가 있다. 經濟學은 元來 “어떻게 하면 稀少한 資源을 効率的으로 利用하면서 自主的으로, 偏在없이 그리고 持續的으로 所得 내지 富를 增大시키느냐” 혹은 “어떻게 하면 自主的으로 偏在없이 그리고 持續的으로 所得 내지 富를 增大시키기 위해서 稀少한 資源을 効率的으로 利用하느냐”를 追求하는 學問이다.

2) 標準經濟學의 基礎理論에 대한 教育은 보다 徹底히 이루어질 必要가 있다(물론 이때 그 理論을 體系的으로 다루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 理論이 어떠한 社會的 與件을 前提로 하는 것이며, 또 그것이 그 理論의 成立을 위해서 어떠한 重要性을 가지는 것인지 그리고 그 理論이 內包하는 意味가 무엇인지를 明確히 할 必要가 있다.

3) 韓國經濟의 傳統 및 現實의 特質을 올바르게 認識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經濟가 當面한 諸問題의 本質을 把握하게 하며, 이를 經濟理論과 關聯시킴으로써 既存理論으로써 解決되지 않는 問題의 解決方向을 摸索하고 既存理論을 批判할 수 있는 方向으로 指導할 必要가 있다.

4) 經濟現實을 論理的으로 分析하고 그 解決策을 찾는 能力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分析 方法 및 分析道具에 관한 教育이 보다 重要視될 必要가 있다.

5) 具體的인 經濟問題를 들어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過程을 거쳐 提起되고 分析되고 解決되었으며, 그 結果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檢討하고 自己가 理解하는 經濟理論에 따라 批判해 볼 機會를 分班討論形式등으로 만들어 줄 必要가 있다.

6) 經濟學徒의 現實參與는 결코 直接的인 것이 아니고 美國같은 나라에서 볼 수 있는 形式의 것이라는 點을 理解시킬 必要가 있다. 美國같은 나라에서는 많은 經濟學教授가 經濟政策上의 主要問題에 대해서 積極的으로 意見을 갖고서 그때 그때 學會誌에 發表한 다든가 公聽會, 教室 내지 세미나 등에서 發言하여 그릇된 政策을 批判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建議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은 發言에 있어서 經濟理論을 忘却해버린 다든가 政府 혹은 產業界의 主張에 安易하게 妥協해버리는 일이 결코 없다.